

【「세토우치 네 곳의 현도 시장 회의」에 참석하고】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10월 2일 세토 우치의 중심 도시인 오카야마 시, 히로시마 시, 다카마츠 시, 마츠야마 시 네 곳의 시가 협력하여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상승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세토 우치 네 곳의 현도 시장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개최까지의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부터 오카야마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 단독 시책의 충실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변 지역을 포함한 광역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저의 머릿속에 항상 있었던 것의 하나는 오카야마 시와 주변의 시들이 함께 활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토 우치 브랜드」입니다. 정령 지정 도시인 오카야마 시와 히로시마 시에 시코쿠 다카마츠 시, 마츠야마 시를 더한 네 곳의 시가 연계하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올해 5월 정령 지정 도시 시장 회의에 참석했을 때, 옆자리에 있었던 히로시마 시장에게 이야기 했더니 동참해 주셔서 오카야마 시에서 다카마츠 시에 히로시마 시에서 마츠야마 시에 각각 타진해 네 곳의 시장들이 모인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멕시코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라 시차가 남아있는 가운데 개최지인 마츠야마로 갔습니다. 도고 온천 본관이라는 장소, 그리고 입고 있는 것도 평소의 정장이 아닌 각 지역을 홍보하기 합피라는 약간 부드러운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인지 회의는 관광 진흥과 특산품의 판로 확대 등 상상 이상의 고조를 보여 내년 이후 국내외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네 곳의 시가 함께 뭔가 구체적인 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무적으로 내용을 채워 나가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히로시마 시장에게 다음 회의까지 회의의 엠블럼을 작성하자는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아직 자세한 것은 쓸 수 없습니다만, 회의 종료 후 네 곳의 시장만의 친목회도 아주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각각의 시장이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속속 제출되는 중에 더욱 강력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저는 물론 다른 시장들도 각각 보람을 느끼는 의미 있는 회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현재 네 곳의 시의 인구를 합치면 약 300만 명, 각각이 총괄하는 「세토 우치 네 곳의 현도시장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용 하여 상승 효과를 추구하여 「윈 윈」의 관계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토 우치 지역 전체의 한 층 더 큰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